

„우리는하느님께서여러분과함께계시다는말을들었습니다.“ (즈카823)

진정성과 자신감을 갖고 교회안의 변화를 살아내기

사목 편지

게오르그 베짙 림부르크 교구장님의 2024년 사순시기 담화



친애하는 교우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 대다수 기업 등 단체의 재무관리부서에는 묘한 긴장감이 찾아옵니다. 지난 한 해를 결산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수익과 손실을 따져보면, 지난 해가 회사에 성공적인 한 해였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익과 손실을 따져 보는 것은 한 해 혹은 인생의 한 단락을 돌아보는 데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저울이 긍정의 방향으로 기울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공과 실패, 성장과 정체의 무게를 달아봅니다. 이는 지극히 인간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세상이라는 큰 틀에서 "연간 결산"을 해보면, 상황은 매우 어둡기만 합니다. 피난과 추방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할 수 있을지, 기후 변화로 인한 생태·경제학적 파장을 조금이라도 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희망을 결산해보면 아쉽게도 부정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테러와 전쟁으로는 아무것도 개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언젠가 깨닫게 되길 바라지만 이 역시 부정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다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삶을 통째로 잃은 이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번에도 다양한 이유로 우리를 떠났습니다. 각자의 결산을 바탕으로 교회를 떠나기로 결정한 개인들이 모여 수많은 균중을 이루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안한 심정입니다.

증단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직관적으로 느껴왔고 연간 통계치를 통해서도 알려진 내용이 몇달 전 실시된 종교실태조사를 통해 다시금 드러났습니다. 독일 전체 인구를 대표하는 5,000 명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는 종교인과 비종교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특히 처음으로 가톨릭 교회에 대한 데이터도 분석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두 큰 교회 (가톨릭, 신교) 모두 지속적인 쇠퇴를 보이고 있는데, 신자 감소율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으며, 교회가 지닌 사회적 중요성 또한 줄어들고 있습니다. 독일 인구 중 단 48%만이 두 큰 교회 중 하나에 속해 있으며, 그 중 상당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강생하신 하느님의 실존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의 기관으로 놓고 비판적으로 들여다보면, 교회에서 체득한 신앙이 개인의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신앙이 교회 밖에서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종교적 신념이 개인의 삶을 이끌어 가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독일이라는 나라는 점점 더 세속화되고 있으며, 대다수의 사람들은 더이상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신자들의 결속력에 대한 조사 결과 역시 심각합니다. 겨우 4%의 가톨릭 신자와 6%의 신교 신자만이 자신이 교회에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가톨릭 교회에 대한 신뢰는 매우 떨어졌습니다. 가톨릭 신자의 절반이 교회를 탈퇴할 생각을 하고 있으며, 교회를 떠나지 않으리라고 굳게 다짐하는 신자 수는 세 명 중 한 명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추세를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것은 치명적일 것입니다. 우리는 솔직해져야 하며, 눈속임에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이같은 심각한 신앙의 쇠퇴는 매우 슬픈 일이며,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는 세대를 이어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현실은 우리를 친절하게 맞이합니다

개인의 일상생활 뿐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도 크고 작은 반발이 있을 수 있고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성장과 웰빙에 집착하거나 젠더 이슈에 열광하는 현상이 "나쁜" 세계이며, 이 같은 시대 조류가 오랜 시간 교회에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같은 단순한 주장에 동의하고 있지만, 결코 타당치 않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생각하는 이들에 대한 비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가톨릭 신자들이 세계 교회로부터 멀어져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개혁 거부와 교회내 성적 학대 이슈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교황청의 진실하지 못한 태도가 점점 더 많은 이들로 하여금 교회와 거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일부분 진정성이 있을 수 있지만 상황을 단순화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는 실망감과 피로감, 슬픈 무력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탈출구와 새로운 관점을 찾는 데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는 무엇보다 미래를 향한 예언자적 신호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하느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종의 불신앙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확신합니다: 현실은 우리를 친절하게 맞이합니다. 결국 우리의 하느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을 때 우리 세상의 공간과 시간에 하느님 자신을 보여주셨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실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 오늘날 세상의 현실은 신의 흔적을 발견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 사이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눈을 감아서 안 됩니다. 언뜻 보기에는 냉정하고 환멸을 느끼더라도, 다시 보면 이전의 패턴을 깨고 사고의 습관을 확장하며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또 다른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정관념을 버리고 사고습관을 변화시킵시다

현실은 우리를 친절하게 맞이합니다. 종교실태조사 결과는 한가지 놀랄만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 가톨릭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들 대부분이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공동체의 무관심보다 분노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대화의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 남아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대다수의 비종교인들 역시 교회가 빈곤과 정의에 관심을 기울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난민과 기후 보호, 빈곤 퇴치를 위한 활동은 여전히 교회의 대외 신뢰도 평가의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 가톨릭 교회의 개혁 과정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교회 구성원 다수가 소위 침묵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종종 듣게 됩니다만, 공신력 높은 설문조사는 오히려 정반대 결과를 보여줍니다. 즉, 가톨릭 신자의 압도적인 96%가 "교회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면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동성애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 평신도들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적극적 참여, 사제들의 혼인 또는 독신 선택 자유권 보장, 예큐메니칼 협력 강화 등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의 공감대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전통 규범을 유지하려는 시도는 자칫 더 큰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혁이 가톨릭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개혁이 없다면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 놀랍게도 가톨릭 신자들의 절반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 일반의 평균치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커뮤니티와 타인의 복지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시다!

▶ 첫영성체와 견진성사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독일 인구의 삼분의 일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에 다니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이들이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교회와 접촉 없이 어린 시절을 보낸 이들이 경우에는 성인이 되어서도 그러한 경향을 유지하게 됩니다.

▶ 이처럼 교회는 여전히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히 성전을 비롯한 각종 교회 건물과 까리타스 기관, 교육 프로젝트 및 상담 서비스는 사회에 한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응한 이들 가운데 1/3의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이나 단체와 접촉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앞 길을 밝혀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 모든 통찰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직 종말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150년 동안 형성되어 온 매우 특정한 사회적 형태의 교회는 이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믿음의 샘은 여전히 솟아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굳게 믿기 때문에 즈카르야 예언자의 말씀이 힘이 됩니다.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루어지리라 [...] 모든 언어의 나라 사람들이 유다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가겠다고 할 것인데, 이는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즈카 8:20-23 참조).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근본적인 경험이며, 나자렛에서 나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서 동행하신다고 그리스도인은 고백합니다. "신비를 접한 사람들은 더이상 자신이 머무르던 곳에서 견디지 못하고 [...] 다른 곳으로 가서 행복과 구원을 찾는 것과 같다"는 신학자 폴베르트 스테펜스키(*1933)의 말처럼 이러한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출발하여 앞으로 나아가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익숙한 곳에서 머무르는데서 찾아오는 불안과 불만을 뒤로 하고 새로움을 찾아 나서는 것은 신앙인의 기본 자세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이제 안주하려는 모습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호기심을 갖고 도전합시다

우리에 대한 세상의 관심이 줄어들 때, 우리는 교회안의 활동에만 집중하려는 유혹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얽매이는 것은 결코 미래지향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질문을 던지기 보다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이타적인 삶을 실천하며, 가능한 모든 차원에서 이웃과 신앙을 나누어야 합니다. 신앙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깊이 성찰함과 동시에 그에 대해 이웃과 소통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사람들이 교회가 무엇이고 신앙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고 너무 당연시해왔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확신을 버리고 모든 교회 활동과 사회 생활에서 사람들과 만나 사람들의 질문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는 저 스스로에게도 큰 화두입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저는 '외부에서' 또는 '위에서' 내려오는 해결책이나 전략은 거의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회, 본당공동체, 교회 시설 및 기관 등 신앙생활을 하는 곳에서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새로운 본당 평의회가 공동체의 현실에 대해 냉정하고 솔직하게 협의하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지 함께 고민하는 것이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가톨릭 사회교육센터의 광고 포스터에서 큰 글씨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변화가 당신입니까?"라는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필요로 하는 변화를 실천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2024년 사순제1주일, 림부르크 교구장

묵상을 위한 질문들:

스스로의 신앙을 결산해 봅시다:

- ▶ 믿음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 ▶ 교회의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 ▶ 교회에 무엇을 기여하고 있나요?

솔직하게 자문해 봅시다:

- ▶ 무엇을 알고 싶나요?
- ▶ 교회에서 어떤 변화를 체감하나요?
- ▶ 어디에서 교회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나요?
- ▶ 교회에 대한 내 생각을 누구와 이야기하나요?



목회 말씀에 대한 성경 공부

현실은 친절합니다:

- ▶ 어디에서 이런 경험을 하나요?
- ▶ 무엇이 내가 이를 인식하는데 도움을 주나요?
- ▶ 하느님의 현존을 어디에서 느낄 수 있나요?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 ▶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나요?
- ▶ 내 신앙에 대해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 ▶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까요?
- ▶ 어떻게 하면 상황이 나아질까요?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 ▶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 ▶ 나는 누구를 옹호하나요?
- ▶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나요?
- ▶ 내 신앙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 ▶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마

케

네

카이

